현대 금속 골호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적 의미 연구

안 명 선*

Ⅰ. 서론
Ⅱ. 장례의 개념과 의미
1. 장례의 법적 개념
2. 장례의 종교적 의미
Ⅲ. 골호의 시대별 유형분류
1. 전통시대 골호의 유형
2. 현대 골호의 유형
Ⅳ. 금속 골호작품의 조형과 상징
1. 금속 골호작품의 조형적 특징
2. 금속 골호작품의 상징적 의미
Ⅴ.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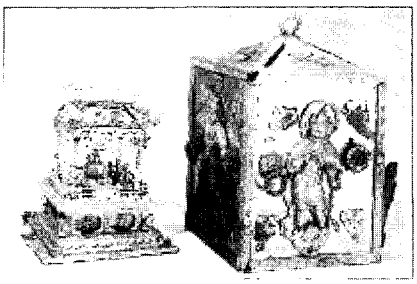
Ⅰ. 서론

금속공예란 금은동철 등 각종 금속성의 재료를 이용해 공예적인 미를 표현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금속으로 주조, 단조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기물을 만들거나 그 표면을 장식하는 기술로서 기술의 척도는 금속을 능숙하게 다루는 장인의 수공 솜씨와 예술성이다. 이러한 금속공예품은 역사적으로 귀족공예를 대표하는 의식용품에서 일반 서민층에서 사용한 일상용품까지 매우 다양하게 쓰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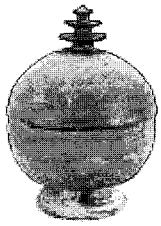
본 연구자는 이러한 금속공예의 예술성과 기능성을 일찍부터 주목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으며,[1] 이 양자적 속성이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접합점을 미적으로 개발하려 노력해 왔다. 특히 일상용 공예품에 있어서 금속공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가운데 금속 골호(骨壺)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다.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금속조형 디자인전공 수료.

1) 안명선, 「새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그림 1〉 감은사동서삼층석탑사리함



〈그림 2〉 토기탑형골호

골호는 화장(火葬)후 뼈를 수거하여 담는 용기이다.[2] 이러한 골호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유입되어 불교의 발달과 더불어 미적, 역사적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다. 즉 부처님이나 승려들을 다비한 후 유골을 담는데 사용되는 사리함〈그림1〉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골호〈그림2〉가 그것이다. 특히 사리함은 최상의 재료와 당대 최고수준의 기술로 정성스럽게 제작되어 미술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사용한 골호도 화장문화와 더불어 발달하여 각 시대마다 양식적인 변모가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요즈음 매장된 산소가 전 국토의 1/3 이상을 점유하여[4] 국토의 효율적 관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골호' . 10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712.

3) 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장엄』, 국립중앙박물관, 1991.
통도사성보 박물관,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통도사 성보 박물관 신축 개관1주년 기념특별전, 통도사 성보 박물관, 2000.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1991.
강우방, 『불사리장엄경』,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1.
김재원, 윤무병, 『감은사지발굴조사보고서』, 국립박물관 특별조사보고 제2책, 을지문화사, 1961.
『감은사지 동삼층 석탑』,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0.
김희경, 『사리구』, 서울 대원사, 1989.
이난영, 『한국 고대 금속공예사』, 서울대 출판부, 2000. pp. 149~151, pp. 180~198.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일지사, 2003.
김연수,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김은수, 「한국 사리 장엄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신대현, 「한국 고대 사리장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강홍섭, "고려시대의 사리장엄구", 고고미술, 180, 1988.
김희경, "한국 탑신의 사리장치 소고", 고고미술, 106, 107, 1970.
황수영, "신라 황룡사 구층 목탑의 사리 본기와 사리기", 황룡사 유적 발굴 보고조사 I , 서울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1984.

4) "묘지에 관한 통계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3.

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5] 화장에 사용되는 골호의 종류도 늘어났다. 골호는 대체로 도자, 돌 등의 재료에, 뚜껑 있는 항아리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흰색이나 옥색이 주로 선호되는 등 실용적이나 단조롭고 미적이지 못한 골호가 주로 만들어지는 형편이다. 결국 다양한 취향과 고급 성향으로 골호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리 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골호에 대해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다가가는데 있어서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금속제 골호는 최근 늘어가는 화장(火葬)문화와 더불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시대적 관심과 필요성에 부응하여 1980년대 말부터 골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1989년 정길자는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화장용 골장기 중 토기만을 연구하였다. 토기 골호의 형태와 무늬를 1期~5期에 걸쳐 편년(編年)을 나누어 형식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6] 비슷한 시기에 박방용 역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고 안압지에서 출토된, 십이지가 음각된 골호에 대해 주목하였다. 십이지 사상(十二支 思想)이 비록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다가 한반도에 들어와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 속에 넓게 자리 잡은 도상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갖고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7] 한편 도자기로 골호의 관심을 가진 허은종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종교적인 사원건축의 형태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종교성이 내재된 편안한 이미지를 추구하였고 기법적으로는 석고를 캐스팅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골호를 제작하였다.[8] 이경주는 현대적인 형태로 집 모양의 골호를 디자인하고 물레기법과 판성형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9]

이처럼 그동안 골호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나 도자공예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금속골호는 우리나라에서 골호의 재료로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에 대한 연구 또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금속은 재료 중 가장 견고하고 항균적이며 친

5) "화장에 관한 통계자료", 위의 자료.
6)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골호 카달로그, 2004.
7) 鄭吉子, 「新羅時代의 火葬骨櫬用土器 硏究」,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8) 朴方龍, "新羅十二支銘骨壺에 對한 小考", 동국대 신라문화, 제7호, 1990. pp. 191~213.
9) 허은종, 「도자골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환경적인 소재일 뿐 아니라 가공성이 뛰어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경제성도 갖춰 골호 제작에 적합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우리의 정서를 담고 실용성과 예술성이 살아날 수 있는 추모용기로서의 현대적 금속골호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Ⅱ장에서는 장례 관련용어의 법적, 사전적인 의미와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적인 측면에서 장례의 의미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적인 골호와 현대적인 골호의 종류를 알아보며, Ⅳ장에서는 현대적인 금속골호의 조형적인 특징과 상징적인 의미를 본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골호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금속공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골호를 합리적이면서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의식(儀式)의 집' 으로 생각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장례의 개념과 의미

1. 장례의 법적 개념

장례는 인간이 거쳐야 할 통과의례인 관혼상제 중 마지막 절차에 속하는 의식이다. 장례관련 용어의 법적인 개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10] 이 법률에서 매장(埋葬)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거나 땅에 납골하여 장사함을 말하고, 개장(開場)은 매장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하며, 화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일컫는다.

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하고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납골시설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11]고 되어 있다.

장례관련 용어의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매장이란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장례법으로 토장(土葬)이라고도 하고, 개장은 다시 장사를 지내는 행위나 이장(移葬)을

10) 이경주, 「陶製 骨壺 제작에 관한 연구 - 전통 골호의 현대적 변용」,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11) 『장사등에 관한 법령』, 법령6615호, 보건복지부, 2002.

말하며, 화장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장법(葬法)으로 시체를 불사르고 남은 뼈를 모아서 장사 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12] 그 유골들을 그릇에 모시는 행위를 납골이라고 하며, 납골한 것을 모셔두는 집의 형태 구조물이나 시설을 납골당이라 말한다.

장례의 장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과거에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대한 토분 석총의 유적을 많이 조성하고 일부에서는 죽은 자를 초옥에 관을 안치해 두었다가 뼈만 수거해 흙에 묻거나 고향으로 가지고 가는 덕장(德葬), 시신을 멍석이나 가마니에 쌓아 산야에 방치하는 풍장(風葬), 길지를 정할 때 까지 가매장하는 권차(權借), 물에 적신 인형을 시체와 함께 매장하는 의제(擬葬), 물에 던져 매장하는 수장(水葬), 도로에 매장하는 노장(路葬), 미혼 남녀의 사후 결혼식하여 합장(合葬)과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흙을 덮은 토묘(土墓)의 전통장법도 있었다.[13]

현대에 오면서 가장 많이 행하는 장법은 매장과 화장이다. 매장은 산소라는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며, 전통적인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명절이나 제사 때 친족들 간의 정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은 경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에 비해 화장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고 고인을 수시로 찾아 뵐 수 있으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사라질 수 있고 친족들 간의 유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장례문화도 매장에서 화장의 장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로, 화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력인사들의 솔선수범과 국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매장 장법 선호의 전통을 고수하던 문중들과 종교계에서도 화장의 장법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14]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후손들을 생각하며 화장하여 최소의 공간에 납골처리하고 깨끗한 위생시설과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주거시설 속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15]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앞의 책.
13) 장철수,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5, pp. 76~86.
14) "묘지개혁 종교계도 동의", 중앙일보, 1997. 9. 19일자.
15) 민병욱,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문화시설 설계기준 연구 - 화장장과 납골당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

2. 장례의 종교적 의미

죽음은 인간에게 마지막 사건이다. 이처럼 죽음은 생명의 끝이며 사회와의 격리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고독하게 홀로 떠나야하는 두려움과 슬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한다. 이처럼 죽음에 관한 종교적인 생각은 시대와 그 사회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장례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인 유교, 불교, 기독교에서 장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유교는 사회적인 윤리와 생활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우리의 가치관, 가족관, 국가관 등에 깊이 자리잡아 왔다. 유교에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收支父母)"라는 이념으로 육체를 손상하는 자체를 큰 불효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에도 매장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매장을 한 부모의 시신은 효의 대상이 되어 후손에 의한 장례와 제사를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유교의 장례와 제사는 죽은 조상을 산자 안에 기억시키고 보은의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례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의례과정이라면, 제사는 저승에 간 조상을 이승으로 불러오는 의례이다. 이렇게 조상과 만남으로써 자손들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며 조상과 관련된 명예와 권위와 삶의 의미를 재생한다.[16]

불교에서는 無始無終의 이념으로, 처음도 창조된 것도 끝도 없다는 것이다. 불교는 윤회설을 수용하는데 생명의 실상을 통찰하는 현자의 지혜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끝없는 연쇄로서 우주의 거대한 생명의 흐름을 연출하는 것이다.[17] 죽음은 곧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의미하는데 전생의 업에 따라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땅(地), 물(水), 불(火), 바람(風)으로 흩어져 다시 그 원류로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불교의 장례는 이생에서 행한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고 깨끗이 하는 뜻으로 화장의 장법을 택하여 자연과의 융합으로 그 영혼을 무소유, 무집착으로 대자유의 획득을 의미한다.

16) 정종수, "화장의 생활문화적 의미",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민 토론회, 1999, p. 56.
17) 이재철, 「불교의 장례문화와 화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9. p. 4, p. 16.

그리스도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의식을 나타낸다. 죽음에 대하여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현실적인 죽음이라고 한다. 죽은 후 시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몸이며 성체는 영한 그리스도 자체이며 부활의 영광을 얻어 영혼과 한가지로 영복을 누릴 소중한 것이다. 그리하여 매장법을 사용하며 죽음을 인생의 종말로 보지 않고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로 인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로 보고 있다.[18]

이처럼 죽음의 세계는 현세의 질서 속에 지배받으며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고는 세계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Ⅲ. 골호의 시대별 유형분류

1. 전통시대 골호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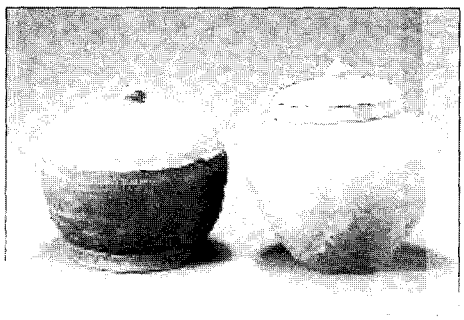
골호(骨壺)는 화장 후 뼈를 수거해 담는 용기로서 화장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골호는 '뼈항아리', '납골함', '납골용기', '장골용기', 영어로는 'Funeral urn', 'Urn'이라 한다.[19] 최근에 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화장장이 '승화원'으로, 납골당이 '추모의 집'으로 명칭을 전환함에 따라 골호를 '추모용기'로 부르기 시작했다.[20] 화장은 신석기말기부터 유럽일대에 발생하여 청동, 철기시대에 성행하다가 기독교 부활사상에 의한 토장으로 쇠퇴하였으며 단지 슬라브(Slav)민족 사이에서만 잔존하였다고 한다.[21] 가장 오래된 골호의 형태는 BC 9~8세기경 프랑스 브릿지(Bruges)에서 출토된 것으로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것이다.[22]

우리나라의 경우 골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중엽까지 다양한 골호가 발굴되었다. 통일신라시대 골호들은 땅위에서 50cm 정도 되는 깊이에 아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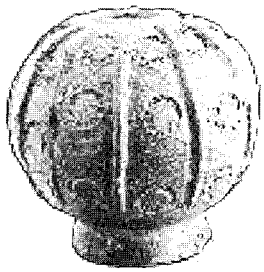
18) 배영기, 『죽음의 세계』, 교문사, 1992, p. 21.
19) 『웹스터 영한사전』, 한영출판사, 1976, p. 1142.
20) 안명선, "추모용기의 상징성과 조형성",- 전시회 카달로그 서문 -, 2004.
21) 水野清一 · 小林行雄 編,「火葬」,圖解 考古學辭典, 東京 創元社, 1977, p. 158.
22) 정길자, 앞의 책에서 재인용, p. 5.

없이 단독으로 매장되어 있었고, 작은 항아리에서 큰 것까지, 구멍 뚫린 네 귀로 뚜껑과 몸체를 묶을 수 있는 형태와 다양한 꽃무늬, 황록색의 유약을 바른 것과, 수·당시대 중국의 기형(器形)을 모방한 것도 있다.[23] 골호의 형상은 호형(壺形), 합형(盒形), 병형(甁形)과 기면 가득히 인화문을 채운 형식이 유행하였다. 매장 방식으로는 지하에 매장하거나, 석실 내에 골호를 매장하는 경우 석탑이나 부도의 지대석 하부에 매장한 것이 있다.[24]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도 발견되었는데, 중앙에 큰 골호를 놓고 그 주변을 3~6개의 작은 것으로 돌려 안치한 것도 발견되었다.[25]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내·외용기의 재료는 토기가 대부분인 가운데 자기도 이용되었고 외용기가 석제품인 경우도 있었다.

고려시대 골호의 재료는 자기 계통이나 목제품을 썼고 외용기는 조립식 6면 돌널을 썼으며 그 위에 사신도나 비천상을 새겨 장식하였다.[26]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화장문화가 크게 위축되어 일반인들이 골호를 쓰는 예는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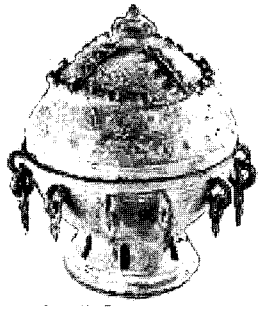


〈그림 3〉 토기골호, 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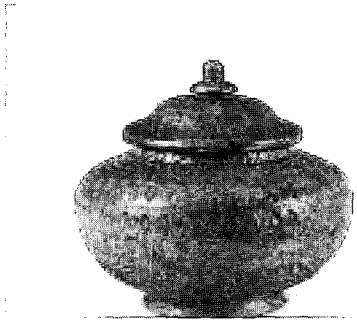


〈그림 4〉 토기대부골호, 신라

23) 김원룡, 『韓國의 古墳』,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p. 196.
24) 강인구, 『韓半島의 古墳』, 아르케, 2000, pp. 243~244.
25) 부여면 변방리 북토부락 출토 매장양식.
26) 정길자, 「고려시대의 조립식 석관과 그 선각화 연구」, 역사학보, 제108집, 1985, p. 4. p. 40.



〈그림 5〉 토기유대영락부골호, 가야



〈그림 6〉 토기녹유골호, 통일신라

〈그림 7〉 청자개토기골호, 고려

〈그림 8〉 흑유토기골호, 조선

2. 현대 골호의 유형

현대에 이르러 화장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다양한 골호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골호는 화장 후 유골을 분쇄하지 않고 그대로 담는 유골함과 분쇄하여 담는 분골함이 있다. 현재 사용되는 골호는 목재함, 도자기함, 석재함, 합성수지함, 전분함, 금속함이 있다. 골호의 규격은 안치되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가로·세로·높이 각 20cm를 권장하고 있다.[27]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골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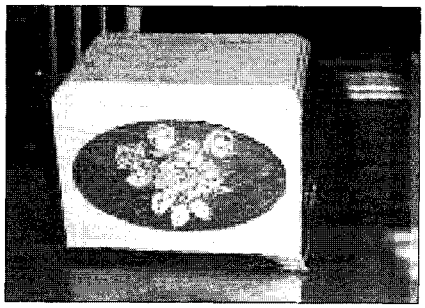
27) "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 보건복지부 제정 및 시행, 1991.

〈현대 골호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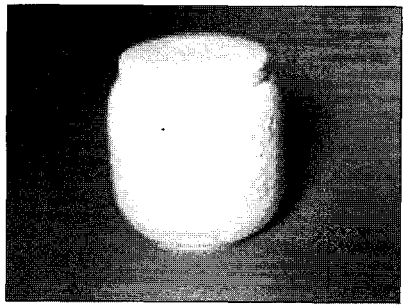
〈표 1〉

종 류	재 료	크기(㎜)	사용국	충격	열
목재함 (그림 9)	나무	220x220	국내, 외	×	×
도자기함 (그림 10)	자기	210x210	국내, 외	×	○
석재함, 옥함 (그림 11)	석재	210x210	국내, 외	×	○
합성수지함 (그림 12)	멜라닌	210x210	국내, 외	○	×
전분함 (그림 13)	옥수수	300x260	미국 및 유럽	×	×
금속함 (그림 14)	동, 철	230x250	미국 및 유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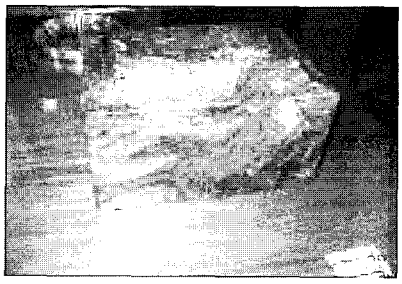
(○: 강한 것, ×: 약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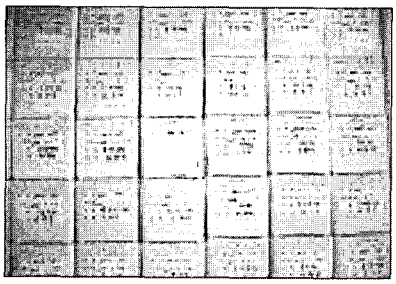
〈그림 9〉 목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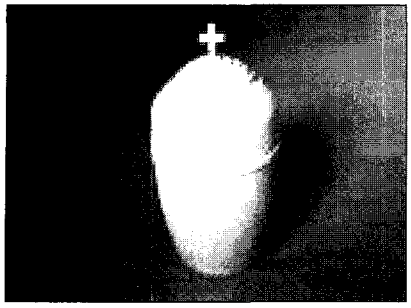
〈그림 10〉 도자기함



〈그림 11〉 석재함



〈그림 12〉 합성수지함



〈그림 13〉 전분함

〈그림 14〉 금속함

골호로 사용하는 목재함은 일반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유골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무의 표면은 칠하지 않은 오동나무가 많이 사용되고 뚜껑부분에 학이나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고 나뭇결의 아름다움과 친밀감이 있는 자연적인 소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성이 취약하여 습기와 곰팡이, 좀벌레가 슬기 쉽고 화재 시 가연성 물질이므로 쉽게 탈 수 있어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재료이다.[28]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골호는 도자기함으로서, 불과 흙의 예술적 상징성으로 애용되고 있는데 충격에 쉽게 파손될 수 있다. 외형은 흰색이 많고 무늬가 없거나 간단한 모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 석재함은 색상이 아름다워 선호되는 재질로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으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재는 재료의 특성상 무겁고[29] 충격 시 파손될 수 있으며 습기를 머금은 성질로 인해 유골이 변색되거나 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수한 경우로서, 합성수지함은 연고가 없는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안치할 때 사용하는 재질의 골호이다. 사각형의 박스형태로 다량으로 쌓을 수 있어 집단 관리 시에 이용된다. 합성수지인 멜라닌 재질은 무게가 가볍고 습기에 강하고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나 열에 약해 화재 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에서 사용 중인 전분함은 생분해성이 높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유골함이다.[30] 주로 땅속에 매장할 때 사용하며 짧은 시간 내에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28) 김영창, 『디자이너를 위한 재료와 가공』, 태학원, 1999, p. 293.

29) 각 유골함의 무게는 6~7Kg으로 납골당에 6-10단으로 쌓아지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우면 문제가 있다. 국내납골당 현지조사, 2003.

30) 미국이나 북유럽에서 사용, 현지답사, 2003.

소재이다. 외형은 흰색으로 원통의 형태이며 합성수지의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금속함은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유족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31]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의 골호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속은 항균성 재료로서 방향, 방충의 효과가 있으며 재료 중 가장 견고하다. 또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제작 가능할 뿐 아니라 대량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 될 수 있는 경제성도 지니고 있다.

Ⅳ. 금속 골호작품의 조형과 상징

1. 금속 골호작품의 조형적 특징

골호는 조상을 모신 장소이며 후손과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조상에 대한 숭배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과 함께 자아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골호는 일반 용기와 다른 많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골호는 재료와 형태에 있어 각 개인의 종교와 사상과 정서에 따라 개성있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고인의 직업이나 과거 업적을 담거나 이상세계를 그린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속골호를 제작함에 있어 삶과 죽음의 행로를 하나의 여행(旅行)으로 보고 그러한 여행이 현실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가교로서의 내 · 외함으로 표현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내함과 외함은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의 지속적인 여행을 반영하는 구조를 지니며 이는 비단 형태적인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형식을 구현하는 물질 그 자체에도 투영된다. 이를 본 연구자는 생성의 과정으로 보고, 하나의 개별적인 구조가 전체의 구조를 형성함과 동시에 전체의 구조가 다시 개별적인 구조로 나뉠 수도 있는 일종의 유기적인 구조 형식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는 원형(原形)과 그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한층 더 원대해지는 원형으로서의 접합(接合)구조로 확장된다.

---

31)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 현지답사, 2003.

이와 같은 관점은 본 연구자의 작품 속에서 표현되고, 기본적인 조형 특징은 재료와 기법 그리고 구조 등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료측면에서 본다면, 이생과 다음 생이 공존하는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존의 골호와 다른 속성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골호의 재질은 석재와 도자기 등이 많이 사용되며 그 가운데 특히 선호되는 것이 옥으로 된 골호이다. 그러나 옥은 석재의 특징과 유사하게 습기가 차기 쉽고 무게가 무거워 이동과 보관 시 난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보통 차가운 느낌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간주되는 금속은 착색과 같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금속 자체의 속성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 중 가장 견고해서 파손의 우려가 적고 무게 면에서도 가벼우며 항균성을[32] 갖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없애주고 방충의 역할까지 한다. 또한 가공성이 뛰어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예술적인 표현을 살릴 수 있는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금속의 속성에 착안하여 은과 구리를 주재료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모양과 형태의 가능성을 지닌 금속 골호 제작을 진행하였다.

둘째로 기법에 관해서는, 골호의 기능적인 목적이 유독 죽음이라는 엄숙한 문제와 연결되어 어둡고 슬픈 분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의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밝은 색채로 처리하고자 하였다. 금속은 세공법과 판금, 단조기법 등의 성형가공을 통해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물기법을 통해 하나의 틀로 대량생산도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금속 자체가 갖고 있는 금, 은, 구리의 색상위에 오색의 빛을 발하는 칠보기법을 사용하였다. 칠보는 불의 예술로서 유리질의 안료를 바른 후 섭씨 800~950도 정도의 가마에서 구워진 후 새로운 보석으로 탄생된다.[33] 이러한 과정은 화장할 경우 화장 가마의 온도가 섭씨 800~950도라는 점과 같으며 이는 곧 이생의 옷을 벗고 다음 생에서 다시 탄생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

32) 강환열 외, "금속 은(銀)으로 제조한 Ag+용액의 항균효과와 안정성", 한국생물공학학회지 제15 권 제5호, 2000, p. 521.
김기돈, "항균 스테인레스강의 항균성에 미치는 합금원소 및 시효조건의 영향", 대한금속 재료학회, 1998, p. 265.

33) 안명선, 『칠보 액세서리』, 시공사, 1996, p. 12.

셋째로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골호는 안치되는 장소인 옥내 납골당과 옥외 납골묘에 따른 구조 및 형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일반적인 골호는 단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존 골호의 단순 구조로부터 벗어나 내함, 외함의 이중구조를 모색하였다. 이는 이생과 다음생의 가교로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의 접점이라는 맥락과 맞닿는 것으로 요컨대 원형과 접합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기본 조형은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에 의거하여 사각 및 원의 형태를 고수하였다. 여기서의 사각 형태는 땅 즉 현세를 상징하고, 원의 형태는 하늘 곧 내세를 상징한다. 골호의 외함은 현세와 가깝다는 의미에서 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되 그림15, 16 작품의 6각이나 8각과 같은 변형 형태를 추가하였고, 그와 달리 내세를 함축하는 내함의 경우에는 주로 원형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또한 그림18 작품은 아랫단 위에 소형의 윗단을 포개어 올려놓은 복합기능의 함으로, 소중한 장신구나 애장품을 담을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19 작품인 작은 분골함은 본래의 고향을 떠나 제2의 고향에 살거나 외국에 사는 가족들이 조상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도록 화장한 유골을 조금씩 나누어 담도록 의도하였다. 그림21 작품은 부부함으로 죽어서도 영원히 같이 안치되고 싶어하는 부부애를 생각하여 디자인되었다. 이 골호의 특징은 뚜껑, 몸체, 받침부분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안치 시에는 합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골호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은 이생으로부터 다음 생으로의 지속적인 생성과정을 함축하는 것이며, 기능적이며 구조적인 부분은 곧 현대의 새로운 금속 골호를 모색하는 연구자의 근본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 금속 골호작품의 상징적 의미

추모용기로서의 금속골호는 산 자로 하여금 죽은 자에 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죽은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는 집과도 같다. 또한 이생에서 다음 생으로의 부단한 여행이 진행되는 본체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혜안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작품을 통해 연구자가 표방하려는 금속공예 작업의 근본 목적과도 일맥상통 하는데, 일상 용품으로부터 출발하여 단지 실용적인 기능성의 용도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

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접하고 또 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의미를 담는 것으로서의 금속 골호가 이 점을 구현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추모용기의 내함 · 외함이라는 이중구조가 연구자가 모색해온 금속골호의 조형성을 대변한다면, 각 함에 새겨지고 입혀지는 색채와 문양은 그러한 추모용기가 담지하는 상징성을 반영한다. 색채는 생명이고 빛은 색을 생성한다. 색은 빛의 자손이고 빛은 색의 어버이로서 빛과 색을 통해 생생한 영혼의 존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34] 문양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형예술품의 표면에 단순히 장식되는 것 뿐 아니라 종교나 내세관, 기원과 소망 등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35]

첫째 색채 면에 있어서, 내함의 경우에는 대체로 고귀함과 깨끗한 이미지를 발하기 위해 순은을 적극 활용하였다.[36] 천국이나 낙원은 찬란한 금 · 은빛으로 넘쳐흐르는 곳이며 눈부시게 빛나는 구름이나 무지개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극락은 오색의 빛으로 빛나며 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밝고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칠보는 적절한 기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적동의 오렌지 빛과 황동의 노란색을 띄는 구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위해서는 주로 보라색을 활용함으로써 기억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안식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청회색과 분홍색을 사용함으로써 각기 경건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유발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종교적인 차이를 감안하여, 가령 기독교적 추모용기로서의 골호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풍부한 색채를 발현했던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색유리에 착안해서 화려한 색채의 칠보작업을 진행하였다. 반면 외함은 철을 사용하는 가운데 검정 색과 금색 펄 및 은색 펄을 혼합함으로써 내함에 비해 견고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한층 강화시켰다. 외함의 기능적인 측면은 내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조상에 대한 후손의 정성을 담은 것이다.

둘째 문양에 있어서, 대체로 내함은 한국의 전통문양 중 내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일반문양을 선택하여 구상했다. 보상화문, 당초문양, 꽃문양, 새, 비어, 거북, 나비, 운문, 용문, 파도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비어, 나비등과 같은 문양들은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상징하며 거북은 영험하고 신령한 동물로서 상서(祥瑞)의 징후

34) 요한네스 잇텐, 『요한네스 잇텐의 색채론』, 상미사, 1976, p. 8.
35) 장경희,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예경, 1994, pp. 43~51.
36) 김유순 외, 『색채와 색채진단』, 예림, 2004, p. 20.

를 상징한다. 꽃과 새는 음과 양을 상징하기에 부부를 위한 골호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다.[37] 이와 같은 문양들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관까지도 반영하는 가운데 모두 평안한 안식을 함의하는 것들이었고, 외함은 종교 차이를 고려하여 주로 종교적 상징문양을 차용해 보았다. 그 결과 포도문, 연화문, 십자문, 만자 등이 구상되었다. 이를 좀더 세분하면 불교용 골호의 외함에는 불교 상징기호와 만자문, 연화 당초문 등을 사용하여 제작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기독교의 상징기호인 십자가와 포도문 등을 사용하여 구상했는데, 예를 들어 서양 중세 기독교 시대에는 십자가, 물고기, 포도나무 등이 예수를 상징하는 대표적 도상이다. 따라서 용기에 표현된 형상들은 이렇듯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접하기 힘든 자연의 오묘한 의미, 즉 삶과 죽음의 이음새를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본 연구자는 금속 골호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적 의미를 〈표2〉 비교하여 분석하였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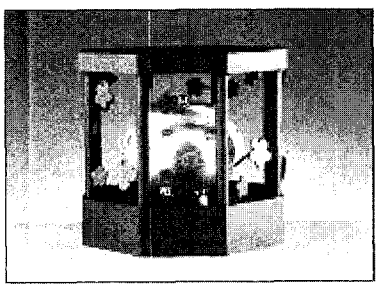
〈현대 금속 골호작품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적 의미〉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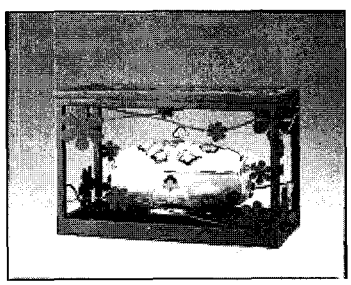
작 품	조형적특징			상징적의미	
	색상	재료,기법	구조	문양의 종류	의미
(그림 15) 고요한 안식 Ⅰ	옥색, 보라색, 회색, 금색	은, 철, 판금, 칠보기법	6각형의 외함, 원형태의 내함	보상화문양	보선화라고도 부름, 길상문양
(그림 16) 고요한 안식 Ⅱ	보라색, 옥색, 회색, 금색	은, 철, 판금, 칠보기법	직사각형의 외함, 장국병형태의 내함	보상 당초문양	보상화문양과 결합된 당초문양으로 오래동안 이어진다는 의미
(그림 17) 고요한 안식 Ⅲ	분홍색, 청색, 노랑색	은, 판금, 주물, 칠보기법	원의형태에 4겹과 8장의 꽃잎으로 장식	모란꽃문양	꽃중의 왕으로 부귀와 명예를 상징
(그림 18) 함께 기억하다 Ⅰ	분홍색, 청색, 노랑색	은, 판금, 주물, 칠보기법	이중의단으로 되어 있고 새형상의 손잡이	용문양	하늘의 권위를 상징, 신의 집을 수호

37) 임영주,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1986.
38) 임영주, 위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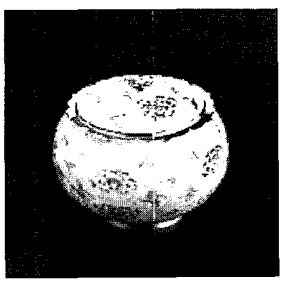
작 품	조형적특징			상징적의미	
	색상	재료,기법	구조	문양의 종류	의미
(그림 19) 함께 기억하다 Ⅱ	연금색, 청회색, 회색	은, 판금, 칠보기법	작은계란형태	거북문양	미래를 예측하는 영험한 동물을 상징
(그림 20) 당신의 짐을 벗으라	은색	은, 판금, 주물기법	계란형태, 운문, 뚜껑손잡이는 새형상	새문양	이승과 저승의 메신저 역할
(그림 21) 안식을 위한 집 Ⅰ	은색, 금색	은, 판금, 주물, 금부기법	납작한등근형태와 새형상의 뚜껑손잡이	유교적인 문양	새와 꽃의 자연상징문양
(그림 22) 안식을 위한 집 Ⅱ	연두색, 보라색, 하늘색	은, 판금, 주물, 칠보기법	원의 형태, 뚜껑 손잡이는 거북이 모습, 밑에는 3개의 굽	불교적인 문양	연화문이나 만자문양 속세에 때묻지 않은 청정한 정토를 상징
(그림 23) 안식을 위한 집 Ⅲ	연회색, 하늘색, 노랑색	은, 판금, 주물, 칠보기법	향로형태뚜껑과 양옆 손잡이는 십자가형상	기독교적인 문양	십자가나 포도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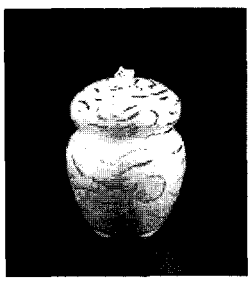
〈그림 15〉 고요한 안식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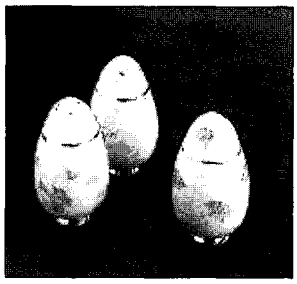
〈그림 16〉 고용한 안식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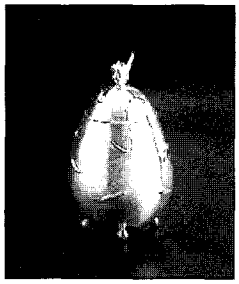
〈그림 17〉 고용한 안식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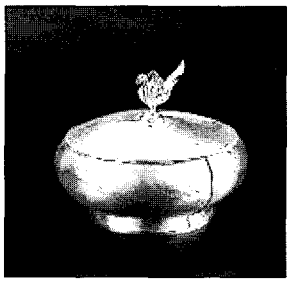
〈그림 18〉 함께 기억하다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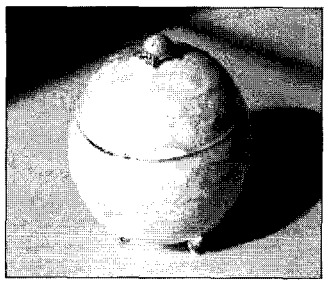
〈그림 19〉 함께 기억하다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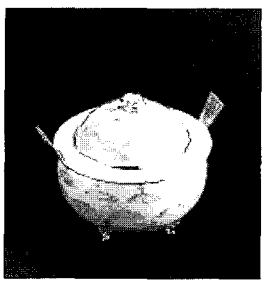
〈그림 20〉 당신의 짐을 벗으라



〈그림 21〉 안식을 위한 집 Ⅰ



〈그림 22〉 안식을 위한 집 Ⅱ



〈그림 23〉 안식을 위한 집 Ⅲ

Ⅴ. 결론

본 연구자가 모색해온 현대 금속골호는 그 조형성과 상징성을 통해서 금속공예 본연의 예술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속성을 함유함과 동시에, 기억과 숭배 신비를 간직한 곳이며 생과 사를 잇는 이음새로서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장례의 의미와 종교별 장례문화를 알아보았다. 원래 불교를 제외한 유교와 기독교의 장례는 매장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화장 문화 쪽으로 재해석을 하여 각 종교별 납골묘지와 추모의 집을 만들고 있었다. Ⅲ장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있어온 골호가 통일신라시대에 절정을 이루고 고려중엽까지 많이 사용하였으나 조선시대부터는 사라지다가 다시 현대에 들어 제작되었다. 과거의 전통골호들은 각 시대마다 약간씩 변화되는 가운데 나름대로 정서와 멋을 담은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골호는 재질과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미적이지 못한 형태로 후손의 정성이 부족해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금속 골호를 사용하지 않는데 반해 전통적인 사리함이나 외국의 골호에서는 금속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금속은 항균적인 소재로 방향, 방충의 효과도 있고 가공성이 뛰어나 예술작품적인 효과를 표현할 수 있고 대량생산도 가능하여 경제성이 있는 소재이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현대 금속골호를 제작함에 천원지방설에 의거, 내 · 외함의 원형과 접합의 이중구조로 지속적인 생성과정을 함축하였다. 내함은 항균적 소재라 할 수 있는 은과 동을 재료로 사용하고, 화장과 유사한 절차로 제작되는 칠보기법을 활용하여 경건하며 밝은 빛과 따뜻한 이미지를 유도하였다. 외함은 철 위에 금색 펄과 은색 펄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유발시키고자 시도했다. 문양은 내함에 식물문양, 동물문양, 종교 상징적인 문양과 내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외함에는 자연적인 문양과 종교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 들을 사용하여 추모용기로서 골호에 담아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자는 금속 골호를 통해 예술적이고 우리의 정서를 담은 새로운 현대 금속공예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점증하는 화장인구와 더불어 아직 화장에 대해 꺼려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추모용기로서의 금속골호를 제시함으로써 어두운 분위기를 벗어나 밝은 관점의 화장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장엄』, 1991.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 서울국립문화재연구소, 1991.

통도사성보박물관,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 통도사성보박물관신축개관1주년 기념특별전, 2000.

강인구, 『한반도의 고분』, 아르케, 2000.

강우방, 『불사리장엄경』, 국립중앙박물관, 1991.

김영창, 『디자이너를 위한 재료와 가공』, 태학원, 1999.

김원룡, 『한국의 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김유순 외, 『색채와 색채진단』, 예림, 2004.

김재원, 윤무병, 『감은사지발굴조사보고서』, 국립박물관 특별조사보고 제2권, 을지문화사, 1961.

『감은사지 동삼층 석탑』, 국립문화재 현주소, 2000.

김희경, 『사리구』, 서울 대원사, 1989.

남민이, 『장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2001.

박태호, 『서울장묘시설100년사』,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법국민협의회, 2003.

배영기, 『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1992.

안명선, 『칠보 액세서리』, 시공사, 1996.

이난영, 『한국 고대 금속공예사』, 서울대 출판부, 2000.

임영주, 『전통문양자료집』, 미진사, 1986.

요한네스 잇텐, 『요한네스 잇텐의 색채론』, 상미사, 1976.

장경희,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1994.

장철수, 『옛무덤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5.

_____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김연수, 「통일신라시대 사리장엄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은수, 「한국 사리 장엄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민병욱,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례문화시설 설계기준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신대현, 「한국 고대 사리장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안명선, 「새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이경주, 「陶製 骨壺 제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재철, 「불교의 장례문화와 화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임옥수, 「동합금의 재료적 특성과 조형적 해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정길자, 「新羅櫬骨容器研究」, 숭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9.
_____ 「新羅時代의 火葬骨櫬用土器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허은종, 「도자골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강환열 외, "금속 은(銀)으로 제조한 Ag+ 용액의 항균효과와 안정성", 한국생물공학회지 제15권, 제5호, 2000.
강홍섭, "고려시대의 사리장엄 연구", 고고미술, 180, 1988.
김기돈, "항균 스테인레스강의 항균성에 미치는 합금원소 및 시효조건의 영향", 대한 금속재료학회, 1998.
김희경, "한국 탑신의 사리장치 소고", 고고미술, 106, 107, 1970.
朴方龍, "新羅十二支銘骨壺에 對한 小考, 동국대 신라문화, 제7호, 1990.
정길자, "고려시대 火葬에 관한 考察",부산사학, 제7집, 1983.
_____ "고려시대 조립식석관과 그 선각화 연구" 역사학보, 제109집, 1985.
정종수, "화장의 생활 문화적 의미",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민 토론회, 1999
황수영, "신라 황룡사 구층 목탑의 사리 본기와 사리기", 황룡사 유적 발굴 보고조사, 서울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연구소, 1984.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카달로그, 2004.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화장시설의 실태 및 개선방안", 1999.
보건복지부, "묘지관계법령 및 질의 응답집", 1995.
"묘지, 화장장, 납골당 현황", 1999~2003.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외국의 장묘시설 운영현황", 2000.
"외국의 장묘문화와 정책", 2001.
기타 국내외 묘지 및 화장장에서 발행한 홍보 및 안내물.
『장사 등에 관한 법령집』, 보건복지부, 200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웹스터영한사전』, 한영출판사, 1976.

水野淸一 · 小林行雄 編,「火葬」,圖解 考古學辭典, 東京 創元社, 1977.
東京都 建設局, "東京都 新靈園等 構想委員會 報告書", 1990.
日本火葬研究協會, "火葬研究06", 2003.

■ Abstract

The Contemporary Metal Urns: Art and Symbolism

Ahn, Myung-Sun

The researcher has tried to develop the aesthetic value of the art and the function of metalwork in conjunction with our daily life. especially has been eager to develop the new possibility of metal urn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ordinary metalwork.

Funeral urns are vessels to fill the ashes of bodies. As the social issues, including problems of restricted land territor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re awakening, many people are much concerned about the use of urns in recent days.

Although social concerns about cremation and urns are getting high, most urns in Korea have been made of ceramic and stone. The shape of old urns are pot style with lids, and their color is simple white or jade green. Moreover, old urns are expensive, unpractical, simple, and furthermore, the feature of urns has not preserved the sense of beauty.

In this context, we have narrow choices to select urns, and it has been difficult for us to be familiar with the old-style urns. Therefore, the need for developing metal urns are necessary as the increase of public concerns towards cremation is widely spreading.

As it is well known, metal is not only regarded as hard, antibacterial, pro-environmental material, but also regarded as good substance for

urns. Metal is also suitable for making urns because of metal' s characteristics of easy processing, mass production, and cheap price.

The researcher has been tri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art of metalwork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metal urns to the public. The researcher has also attempted to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and symbolic implications of contemporary metal urns for ordinary people to adopt metal urns as their 'Rite Haven'